

IDP 정책연구

# 어떻게 '수도권정당'이 될 것인가?

- 2010년 영국 총선 평가와 노동당의 진로 -

이진복 |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 어떻게 ‘수도권정당’이 될 것인가?

- 2010년 영국 총선 평가와 노동당의 진로 -

이진복\_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Contents

I. 들어가며 .....	1
II. 영국노동당의 수도권 참패 .....	4
III. 에드 밀리반드의 ‘중산층 정치’ .....	15
IV. 나오며 .....	29
[ 표 1 ] 2010년 영국 총선 결과 .....	5
[ 표 2 ] 사회집단의 노동당·보수당 친화도 .....	13
[ 그림 1 ] 영국 중산층 구성 .....	7

\* 보고서의 모든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정책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

## 요약

### ■ 영국 노동당의 수도권 참패

- 2010년 영국 총선에서 노동당이 패배함으로써 노동당 13년 집권이 종식되고, 보수당과 자유민주당의 연정이 출범하였음
  - 보수당은 36.1% 득표로 총의석 650석 중 306석을 획득했고, 노동당은 29.0% 득표로 258석을 얻었고, 자유민주당은 23.0% 득표로 57석을 얻었음
  - 노동당이 득표율 6.2%를 상실한 것은 1983년 대참패이후 최대의 지지율 상실이며, 91석의 의석을 잃은 것은 노동당 창당이후 최악의 패배였음
- 노동당의 2010년 총선 패배는 수도권에서 전멸에 가까운 궤멸적 타격을 받았기 때문임
  - 수도권에서 노동당이 상실한 전체표의 70%를 잃고 그 결과 노동당은 총 57석을 상실했는데, 이는 이번 총선에서 노동당이 잃은 91석의 거의 2/3임
  - 런던을 포함한 수도권 302석 중 단지 49석만을 얻었고, 런던을 제외한 좁은 의미의 수도권에서 197석 중 단지 10석만을 얻었을 뿐임. 더욱이 런던을 제외한 수도권에서 노동당의 득표율은 10%대 중반으로 자유민주당에 계도 뒤진 3위에 불과했음
- 노동당의 수도권 참패는 중도 부동층집단(centrist swing voters)인 중산층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임
  - 노동당에 결정적 타격을 가했던 계층은 '블루칼라 기업(Blue Collar Enterprise)'이라 불리는 기업가정신을 가진 블루칼라로 신중산층을 구성하

고 있는 숙련노동계층임. 숙련노동계층, 특히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숙련 노동계층은 열망과 라이프스타일에서 자신을 노동계층으로 생각하지 않고 중산층 의식을 갖고 있었음

- 숙련노동계층은 2005년 총선에서 노동당을 43% 지지했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불과 23%만이 지지했음. 역대 선거 최대인 20%의 지지율 하락이 있었음. 특히, 여성 숙련노동계층은 거의 50%의 지지율 하락이 있었음

● 수도권 중산층은 노동당이 자신을 대변하지 않는 무능한 정당이라고 생각했음

- 노동당은 복지수급자(66%), 노조(69%), 이민자(59%)와 친화적이고 주택소유자(31%), 중산층(35%), 수도권(32%)과 소원하다고 생각했음. 반대로 보수당은 수도권(72%), 중산층(68%), 주택소유자(57%)의 정당이었음

- 보수당은 모든 주요 능력이슈에서 신뢰를 받고 있었음. 경제운영에 대해 44% 대 16%로, 재정적자 축소에 대해 51% 대 12%로, 납세자를 위해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31% 대 12%로 보수당이 더 신뢰를 받았음. 심지어 노동당이 강세를 보여야 하는 이슈에 대해서도 보수당이 노동당보다 더 신뢰를 받았음. 보수당은 공정한 지출삭감에 대해 27% 대 16%로, 평등과 사회이동의 달성에 대해 22% 대 16%로 노동당을 앞섰음

- 이는 카메론(David Cameron)이 '현대적인 온정적 보수주의자(modern compassionate conservative)'임을 공언하면서 1980년대의 냉혹한 신우파적 수사를 버리고 '따뜻한' 중도우파 정당으로 보수당을 현대화하여 정치의 중도를 장악했기 때문임

## ■ 에드 밀리반드의 '중산층 정치'

● '수도권정당'이 되기 위한 노동당의 현대화 과제

- 노동당은 19세기 노동계층의 '항의의 정당'에 그 기원을 두고 있지만 '권력의 정당(a party of power)'이 되어야 함
- 노동당은 '국민정당으로서 광범한 선거연합(a broad electoral alliance as a national party)'을 구축해야 함
- 노동당은 경제이슈에서 유능하다는 신뢰를 다시 얻어야만 승리할 수 있음
- 노동당은 '사회정의의 정당임과 동시에 개인의 열망의 정당(the party of social justice and individual aspiration)'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
- 노동당은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논쟁적 이슈에 대해 정면으로 대응해 공개적으로 논쟁해야 함
- 노동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를 향상하고 집권의 발판으로써 지방정부에서 당의 위상을 강화해야 함
- 노동당은 수도권에서 당을 재활성화하고 현대화해야 함
- 노동당은 자신만의 새로운 정치에 대한 아이디어를 개발해야 함

● 에드 밀리반드(Ed Miliband) 신임 노동당 대표는 노동당을 수도권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고통 받는 중산층(the squeezed middle)'의 열망과 불안을 대변하는 '중산층 정치'를 역설하고 있음

- "고통 받는 중산층의 열망과 불안은 우리의 정책재검토와 영국을 변화시키는 계획의 핵심이 될 것이다."
- "나의 목표는 노동당이 우리나라의 고통 받는 중산층과 열심히 일해 성공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나의 목표는 재집권하는 것이다."

---

- “나의 임무는 분명하다. 다시 한 번 노동당을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세력으로 만들 것이다. 고정관념에 굴복하지 않고 다수를 대변하면서 정치의 중도를 형성하는 정당으로 만드는 것이다.”

- 카메룬이 중산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 보수당을 중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드 밀리반드는 노동당의 좌경화가 아니라 중도화로 맞서고 있음.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신뢰가 지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노동당은 아웃파이터가 아니라 인파이터가 되어 중도 싸움에서 승리, 중산층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것임

● 에드 밀리반드의 ‘고통 받는 중산층’ 메시지는 ‘영국의 약속(the British Promise)’과 ‘공동체(Community)’를 핵심테마로 함

- ‘영국의 약속’은 노동당을 낙관주의와 미래세대의 성공에 초점을 맞추는 ‘미래세력’으로, ‘공동체’는 노동당을 ‘좋은 사회’를 만드는 ‘국민통합세력’으로 일신해 중산층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메시지임

- 노동당은 함께 더 잘 사는 ‘중산층의 꿈’을 대변하는 ‘국민의 정당’, ‘국민의 희망과 열망의 정당’이 되어야 한다는 것임. 또한 ‘중산층의 꿈’을 공유하는 모든 세력과 대연합을 함으로써 재집권할 수 있다는 것임

● 에드 밀리반드는 중산층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보수당정부를 ‘무능한 정부’로 공격하는 한편, ‘중산층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계획’을 강조함

- “책임 있는 계획의 출발점은 다음 4년간 재정적자를 반으로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성장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고 경기침체를 항상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번영과 성장의 미래 동력에 대한 초점이 우리의 정책재검토의 핵심이 될 것이다.”

---

- 노동당의 ‘책임 있는 계획’은 ‘변화의 계획’임. “변화의 계획이 필요하다. 은행을 개혁하고, 미래산업에 투자하고, 우리경제의 피가 될 수 있는 중소기업과 기업가를 지원하는 계획이다.”

- 에드 밀리반드는 “노동당을 기업의 정당(the party of enterprise) 그리고 중소기업의 정당(the party of small business)으로 만들 것”이라고 선언함. “기업과 일자리 창출이 좋은 경제와 좋은 사회의 토대”이고 “나는 그 핵심을 이해하는 정당을 이끌고 있다.”

- 노동당이 수도권에서 승리하는 ‘자연스런 집권당(the natural party of government)’이 되기 위해서는 ‘따뜻하지만 무능한 정당’이 아니라 ‘따뜻하면서 동시에 유능한 정당’으로 면모를 일신해야 한다는 것임

※ 제3의 길의 “현대화 프로젝트는 노동당을 영국의 모든 국민들의 일상적인 불안과 열망과 공명하는 방식으로 온정, 공정, 사회이동, 공유된 사회책임과 같은 우리의 가치를 적용하는 현대적이고 경제적으로 유능한 국민정당으로 확립하는 것이다.”

# I 들어가며

지난 선거에서 졌다는 것을 안 순간을 생생하게 회상할 수 있다. 보통의 교외지역인 미들랜드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을 때, 포드 시에라 자동차를 세차하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났다. 그는 전기 자영업자였다. 그의 아버지는 언제나 노동당을 지지해왔고, 자신도 노동당을 지지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자신의 집을 샀고 자신의 사업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은 잘 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보수당원이 되었다”고 그는 말했다. “그 순간 우리가 패배한 원인을 나는 명확히 알았다. ...사람들은 노동당의 본능을 자신의 본능에 근거해서 평가한다. 그리고 승용차를 세차하고 있는 사람은 이를 분명히 했다. 그의 본능은 생활 속에서 잘하는 것이고, 노동당의 본능은 사람들이 잘하는 것을 멈추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sup>1)</sup>

이는 블레어(Tony Blair)의 1992년 총선패배 원인에 대한 진단이다. 노동당은 승리할 것으로 예상된 1992년 총선에서 다시 수도권에서 참패, 네 번째 연속패배를 당함으로써 집권가능성을 상실한 만년야당으로 낙인찍혔다. 「남부의 불만 Southern Discomfort」은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남부 잉글랜드’ 즉, 수도권에서 노동당이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노동당의 집권은 전체의 거의 절반이 있는 수도권에 달려 있고, 수도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열망을 가진 유권자들(the aspirational voters)’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도권의 ‘열망을 가진 유권자들’이 노동당을 불신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꺾멸적 타격을 입어 총선에서 계속 패배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

1) Anthony F. Heath, et al., *The Rise of New Labour: Party Policies and Voter Choices*(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p. 7.

수도권의 ‘열망을 가진 유권자들’은 노동당이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거나 존중하거나 보상한다고 믿지 않았다. 재능을 장려하고 기회를 촉진하기는커녕 노동당은 ‘빼앗는’ 정당으로 보였다. 수도권 유권자의 시각에서 노동당에 투표하는 것은 전혀 ‘그들의 이익’이 아니다. 무엇보다 노동당은 ‘무능한 정당’으로 여겨졌다. “노동당에 투표해야겠다는 생각도 했지만 결국 투표하지 않았다. 노동당이 집권하면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는 노동당의 경제관리 능력에 대한 수도권 유권자의 부정적 판단 때문이다. 당시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보수당은 자연스런 경제 관리자로서 간주되었다. “보수당은 돈을 이해한다. 돈은 말이 필요 없다.” 노동당은 따뜻하지만 국가를 운영할 능력이 없는 정당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반면 보수당은 냉혹하지만 유능한 정당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보수당정부 하에서 국민들은 어렵지만 상황을 훨씬 더 악화시킬 것으로 생각되는 노동당에 투표하지 않았던 것이다. 더욱이 노동당은 ‘당신을 혼내는’ 정당이었다. 노동당은 자기성찰 없이 유권자를 비난하는 오만한 정당으로 비쳐졌다.<sup>2)</sup>

여기서 ‘열망을 가진 유권자’는 이미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계층 성취자들과 고통 받는 중산층으로 이루어진 ‘신중산층(new middle class)’이다. “신중산층은 열망을 가진 노동계층과 점차 불안해진 중위소득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편안한 삶이 아니라 고투와 근로의 삶을 산다. 즉, 자신과 가족을 위해 더 좋은 삶을 원한다.” 신중산층은 선거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동층 유권자들이고, 노동당이 계속해서 낮은 득표를 해왔던 ‘중도’ 집단이다. 노동당 현대화에 대한 논쟁에서 신중산층의 성격 규정은 그 핵심을 이

2) Giles Radice, *Southern Discomfort*, Fabian Pamphlet 555(London: Fabian Society, 1992). Stephen Pollard and Giles Radice, *More Southern Discomfort: a Year on - Taxing and Spending*, Fabian Pamphlet 560(London: Fabian Society, 1993). 이진복, “뉴타운의 정치학: 미국 민주당과 영국 노동당의 사례를 중심으로” 『중도개혁주의』 제4호(서울: 국가전략연구소, 2008).

룬다. 구좌파에게 “신중산층은 약삭빠르고 남부적이고 피상적”이다. 현대화론자에게 “그들은 상냥하고 열심히 일하고 걱정하며 야심적이다.” 이들은 “꿈을 가진 보통사람들”이고 “노동당의 미래”로서 “노동당이 집권하는데 필요한 연합의 거대한 다수이다.” 현대화론자에게 신중산층은 가난하지는 않지만 특권도 없는 “노동당의 자연스런 지지자들”이다.<sup>3)</sup>

노동당에 대한 ‘수도권의 불만’은 지역적인 문제 이상이었다. 중산층이 대중화되면서 노동당은 수도권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일어나기 시작한 ‘중산층의 불만’에 대응해야 했다. 따라서 “다음 선거에서 노동당이 승리하려면 시대와 조응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채택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즉, 신노동당(a new Labour party)이 되어야 한다. 신노동당은 노동당이 1945년 총선과 1964년 총선에서 승리했을 때처럼 사회이동의 장벽을 없애고 개인의 생활기회를 장려하는 ‘진정한 기회의 정당(the party of genuine opportunity)’이 되는 것이다.”<sup>4)</sup> 이는 서민이 중산층이 되고 중산층이 부자가 되는, 더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설득할 수 있는 상향이동의 메시지와 어젠더를 개발하는 것이다. 노동당이 ‘중산층의 꿈’을 확신을 갖고 말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도약할 때까지 노동당은 중산층과 중산층이 되기를 열망하는 서민의 정당이 될 수 없었다.

블레어는 「남부의 불만」의 제안을 받아들여 ‘중산층 중도 영국(middle-income middle Britain)’을 대변하는 ‘제3의 길’ 노동당 현대화를 추진했다. 노동당 현대화는 당을 중도화하여 중산층의 신뢰를 얻음으로써 수도권정당이 되는 것이다. 신노동당의 가장 큰 정치적 성과의 하나는 수도권에서 승리할

3) Philip Gould. *The Unfinished Revolution: How the Modernisers Saved the Labour Party*(Lond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98), pp.3-4, 85, 122, 396.

4) Giles Radice. "Cold Comfort." *Progress*(2008, 3, 1)

수 있는 정당이 되었다는 것이다. 노동당이 최초로 13년간 총선을 3회 연속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수도권에서 선전한 덕택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노동당에 대한 수도권의 불만이 새롭고 복잡한 형식으로 재출현하고 있었다. 2006년 지방선거와 2009년 유럽의회선거에서 연이어 노동당은 수도권에서 참패, 선거에서 패배했다. 결국 2010년 총선에서 노동당은 다시 수도권에서 참패함으로써 야당으로 전락했다.

이 글은 ‘왜 수도권에서 참패했고 어떻게 다시 수도권정당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영국 노동당 사례분석이다. 2장에서는 2010년 영국 총선을 분석하고 수도권 참패의 원인을 진단하고 있으며, 3장은 수도권의 신뢰회복을 위한 ‘노동당의 재현대화(re-modernization)’에 대한 논의와 에드 밀리밴드(Ed Miliband) 신임 노동당대표의 메시지를 통해 선거패배 후 노동당의 대응을 살펴보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수도권에서 참패했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려면 수도권에서 이겨야 한다. 영국 노동당의 경험은 민주당의 수도권 승리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II 영국 노동당의 수도권 참패

2010년 영국 총선에서 노동당이 패배함으로써 노동당 13년 집권이 종식되고, 보수당과 자유민주당의 연정이 출범하였다. 2010년 총선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2010년 영국 총선 결과

	보수당	노동당	자유민주당
2005년 총선 의석수(득표율)	198석(32.4%)	355석(35.2%)	62석(22.1%)
2010년 총선 이전 의석수	210석	349석	62석
2010년 총선 의석수	306석	258석	57석
의석변화	+97석	-91석	-5석
득표수	10,703,754표	8,609,527표	6,836,824표
득표율	36.1%	29.0%	23.0%
득표율 변화(swing)	+3.7%	-6.2%	+1.0%

보수당은 36.1% 득표로 총의석 650석 중 306석을 획득했고, 노동당은 29.0% 득표로 258석을 얻었고, 자유민주당은 23.0% 득표로 57석을 얻었다. 노동당은 이전 선거 득표율에서 6.2%를 잃음으로써 91석을 상실했다. 보수당이 단독집권하지는 못했지만 노동당이 득표율 6.2%를 상실한 것은 1983년 대참패이후 최대의 지지율 상실이며, 91석의 의석을 잃은 것은 노동당 창당이후 최악의 패배였다.<sup>5)</sup>

2010년 총선에서 영국 전체 의석의 절반이 있는 수도권에서 노동당은 거의 전멸했다. 수도권에서 노동당이 상실한 전체표의 70%를 잃고, 그 결과 노동당은 총 57석을 상실했는데, 이는 이번 총선에서 노동당이 잃은 91석의 거의 2/3이다. 런던을 포함한 수도권 302석 중 단지 49석만을 얻었고, 런던을 제외한 좁은 의미의 수도권에서 197석 중 단지 10석만을 얻었을 뿐이다. 더욱이 런던을 제외한 수도권에서 노동당의 득표율은 10%대 중반으로 자유민주

당에게도 뒤진 3위에 불과했다.<sup>6)</sup> 수도권 지역에서 노동당은 유력한 경쟁정당으로서 지위를 상실한 것이다.

신노동당이 1997년 총선에서 압승했을 때, 노동당은 수도권에서 133석을 얻었다. 2000년과 2005년 총선에서 노동당이 연속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수도권에서 선전했기 때문이다. 노동당의 집권여부는 수도권에 달려있는 것이다. 2010년 총선결과를 정리하면 신노동당 3연속 승리의 토대가 된 수도권 지지기반이 해체되었다는 것이다.

영국의 수도권은 영국 전체에서 가장 번영하고 가장 생산성이 높은 지역이다. 수도권 유권자의 80%이상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대학진학률이 가장 높다.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20% 이하로 민간부문이 활성화되어 있다. 제조업 부문 종사자보다 금융서비스업 부문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노조 가입율은 가장 낮다. 1인당 소득이 가장 많고 전문직, 화이트칼라, 숙련노동자 즉, 중산층의 비율이 가장 높다. 수도권의 승패는 중산층이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에 달려있는 것이다.

영국에서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유권자의 비율은 71%이다. 이들은 노동계층보다 더 정치에 관심 있고 더 많이 투표하는 경향이 있다. 중산층은 부동층이면서 동시에 정치적으로 더 능동적이다. 또한 중산층은 노동계층보다 미래에 대해 더 확신하고 낙관적인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 71%의 중산층은 단일집단이 아니라 6개의 독특한 부분집단으로 이루어져있다.<sup>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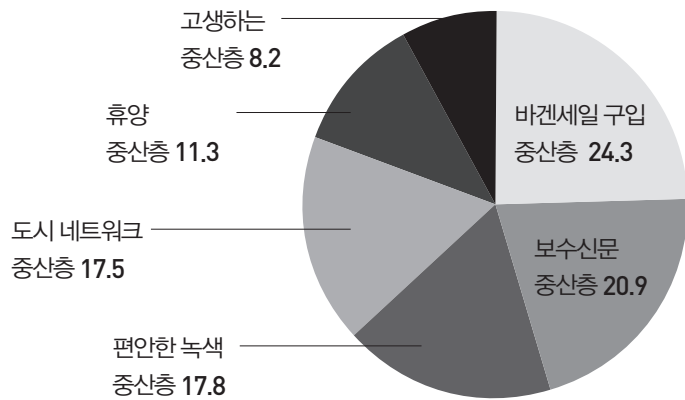
6) Patrick Diamond and Giles Radice, *Southern Discomfort Again*(London: Policy Network 2010), pp. 11-16. Patrick Diamond and Giles Radice, "Labour's Fatal Southern Flaw?" *Policy Network*(2010. 9. 24).

7) Deborah Mattinson, "The Mind of Middle," *Progress*(2011. 4. 8). Myra Butterworth, "Most Britons Describe Themselves as 'Middle Class,'" *The Telegraph*(2011. 3. 20).

5) "United Kingdom General Election, 2010," [http://en.wikipedia.org/wiki/United\\_Kingdom\\_general\\_election\\_2010](http://en.wikipedia.org/wiki/United_Kingdom_general_election_2010)



[그림 1] 영국 중산층의 구성(%)



‘바겐세일 구입 중산층(Bargain Hunters)’과 ‘고생하는 중산층(Squeezed Strugglers)’은 금전적으로 넉넉하지 않으며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여성이다. ‘편안한 녹색 중산층(Comfortable Greens)’은 상대적으로 더 부유하고 따라서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와 환경에 관심이 많다. ‘도시 네트워크 중산층(Urban Networkers)’은 도시에 거주하는 젊은 세대이다. 이들은 중산층 부모를 가진 세대로 포부를 갖고 자신의 장래 경력을 중시한다. 이들은 미래에 대해 낙관적이지만 시간이 항상 부족한 사람들이다. 특히 젊은 부부는 더욱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들의 바쁜 생활을 이해해야 한다. ‘휴양 중산층(Deserving Downtimers)’은 가장 부유한 집단으로 주로 은퇴한 노령자로서 자신의 자녀가 자신과 같은 중산층이 되기를 바란다. ‘보수신문 중산층(Daily Mail Disciplinarians)’ 또한 나이 많은 남성으로서 영국이 이민자에 대해 너무 관대하고 동성애자가 주류와 동일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견해에 상대적으로 부정적이다.

전체 중산층의 가장 적은 부분, 8.2%를 차지하는 ‘고생하는 중산층’은 노동당을 지지해왔다. 전체 중산층의 1/3 정도를 차지하는 ‘휴양 중산층’과 ‘보수신문 중산층’은 대체로 보수당을 지지해왔다. 에드 밀러반드 신임 노동당 대표의 ‘중산층 정치’의 목적은 전체 중산층의 24.3%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는 ‘바겐세일 구입 중산층’과 17.5%를 차지하는 장래 경력을 중시하는 ‘도시 네트워크 중산층’의 신뢰를 회복하고, 17.8%를 차지하는 자유민주당 지지성향의 ‘편안한 녹색 중산층’의 지지를 되찾는 것이다.

이번 선거결과를 계층적으로 보면 노동당은 비숙련노동계층에서 16% 앞섰지만 전문가계층에서 7%, 화이트칼라 계층에서 16%, 숙련노동계층에서 16% 뒤졌다. 비숙련노동계층과 화이트칼라계층에서 각각 6%의 노동당 지지를 하락이 있었다. 노동당에 결정적 타격을 가했던 계층은 ‘블루칼라 기업(Blue Collar Enterprise)’이라 불리는 기업가정신을 가진 블루칼라로 신중산층을 구성하는 숙련노동계층이다. 숙련노동계층, 특히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숙련노동계층은 열망과 라이프스타일에서 자신을 노동계층으로 생각하지 않고 중산층 의식을 갖고 있었다. 숙련노동계층은 2005년 총선에서 노동당을 43% 지지했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불과 23%만이 지지했다. 역대 선거 최대인 20%의 지지율 하락이 있었다. 특히, 여성 숙련노동계층은 거의 50%의 지지율 하락이 있었다.<sup>8)</sup> 노동당에 대한 부동층 지지자들인 수도권 중산층이 노동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던 것이다.

수도권 중산층은 왜 노동당 지지를 철회했는가? 무엇보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중산층의 자산과 주택이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서비스 부문이 발달된 수도권에서 중산층에 대한 타격이 컸다. 그러나 금융위

8) Liam Byrne, *Why did Labour Lose and How do We Win Again?*(London: Progress, 2010), pp. 6-16. Liam Byrne, "Lost in the Middle," *Progress*(2010. 5. 20).

기 이전에 이미 중산층은 생활수준과 실질임금에서 번영의 성과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었다. 가처분소득이 노동당이 집권한 1997년부터 2005년까지 평균 22% 증가했지만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단지 1.2%만이 증가했을 뿐이다. 금융위기 이후에는 평균물가상승을 고려하면 소득이 크게 떨어졌다. 더욱이 수도권은 생활비용이 전국평균보다 17% 더 비싸다. 따라서 중산층은 가난하지는 않지만 학자금, 연금 등과 같은 가족의 생활비용을 걱정하고, 맞벌이를 하면서 자녀양육, 부모님 봉양까지 많은 책임을 짊어지는 ‘고통 받는 중산층(the squeezed middle)’이 되었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불황과 대규모 공공지출 삭감이 예상된 상황에서 중산층은 자신의 경제적 전망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었다. “주요 이슈는 우리가 고통 받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범위 바로 위에 있다.” “우리는 많은 세금을 내고 있지만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소득 범위 내에 있지 않다.” “성공하려는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성공하려는 노력을 포기한 자는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중산층의 최대 걱정은 지금 ‘자신의 힘으로 잘 사는 것이 지속가능한지 그리고 자녀가 자신이 당연시하고 있는 성취만큼 할 수 있는지’였다. 중산층의 대부분은 자신의 자녀가 자신만큼 살지 못할 것을 걱정하고 있었다. 금융위기 이후 ‘불안의 시대’에 ‘고통 받는 중산층’의 정서는 모순적으로 표현되었다. 더 많은 국가의 보호를 원하지만 다른 한편 중산층은 더 많은 개인의 선택과 자신의 삶에 대한 더 많은 통제권을 원했다. 금융위기에 책임이 있는 은행장을 비롯한 갑부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를 수급 받는 자에 대해서도 분노하고 있었다. 금융위기는 시장의 실패인 동시에 정부의 실패로 보였다. 특히 금융위기에 대한 긴급 대응으로 엄청난 국가부채가 누적됨으로써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었다.

‘고통 받는 중산층’의 불만은 ‘잊혀진 중산층(the forgotten middle class)’의 불만이었다. 노동당정부의 정책에서 중산층은 잊혀진 것으로 여겨졌다. 중산층은 열심히 일하고 성공을 열망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중산층은 대체로 자가용을 갖고 있는 중간의 임금을 받는, 그래서 세금공제를 비롯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맞벌이부부이다. 금융위기 이후 이들은 일자리를 잃었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자신의 배우자가 일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지 않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고 나의 의무를 다했지만 성공하지 못할 것 같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복지급여를 받거나 보너스를 받고 있다. 보통의 일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일을 하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뒷에 걸려있다.”<sup>9)</sup>

이번 총선에서 복지개혁과 이민이 핵심이슈로 부각된 이유는 ‘고통 받는 중산층’의 이런 좌절감이었다. 중산층은 자조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국가가 도와야 하고, 물질적 이기심이 책임감과 공정한 룰 그리고 취약자에 대한 지원과 결할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노동당은 책임감 없이 룰을 어기는 복지 사기꾼에 눈감는 불공정한 정당으로 보였다. 이민 이슈는 특히 중산층의 경제적 불안을 대신 표현하고 있었다. 중산층은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고 오히려 국가에 기여하는 이주노동자를 장려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자신들이 고생하고 있을 때, 왜 이민자들에게만 복지급여와 주택을 제공해야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데 노동당은 이런 정서를 편견으로 치부하고 이민에 대한 중산층의 불만을 듣고자 하지 않았다. “노동당은 국민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해하고자 하지 않았다.” 노동당은 국민과의 교감을 상실한 정당으

9) John Denham, "How does Labour Speak to England?," *Fabian Society*(2010. 6. 8). Deborah Mattinson, "Southern Discomfort Twenty Years on," *Policy Network*(2010. 11. 9).

로 보였고, 노동당의 공약에는 중산층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나아가 노동당은 변화의 시대에 변화의 세력임을 각인시키는데 실패했다. 이번 총선에서는 신노동당 이전처럼 노동당에 대한 공개적인 적대감은 매우 적었지만 노동당은 에너지와 역동성이 고갈된 지쳐있는 정당으로 여겨졌다. 선거에서 변화에 반대하는 정당은 대체로 패배하게 되어있다. 노동당이 기성 세력으로 보이자 불가피하게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sup>10)</sup> 고든 브라운(Gordon Brown)은 미래가 아니라 과거로 간주되었을 뿐 아니라 차기 노동당정부의 비전을 분명하고 단순한 언어로 명료하게 하는데 실패했다. “국가적 메시지를 찾을 수 없었다.”<sup>11)</sup> 보수당은 과반수를 차지해 단독집권하지는 못했지만 노동당은 확실하게 패배했다. 중산층은 보수당을 완전히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노동당정부에 질렸고 변화를 갈망했던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수당이 1980년대의 냉혹한 대처주의 신우파 정당이 아니라 립서비스일지라도 ‘따뜻한’ 중도우파 정당이 되었다는 것이다. 카메론(David Cameron)은 ‘블레어의 후계자(the heir to Blair)’임을 자처하면서 이 데올로기가 아니라 실용을 중시하는 ‘현대적인 온정적 보수주의자(modern compassionate conservative)’임을 공언했다.<sup>12)</sup> “보수당은 언제나 미래에 대한 정당이고 현재의 상황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변화의 정당이기 때문에 당은 현대화되어야 한다. 보수주의는 뒤쳐진 사람들을 도와야 되기 때문에 온정적

10) 2010년 총선에서 유권자의 29%만이 노동당 4기 정부를 원했다. 이번 총선은 노동당 13년 집권에 대한 분명한 심판의 선거였다. 심판이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과거의 세력’이 아니라 ‘미래의 세력’임을 증명해야 했다. 그러나 노동당은 기성세력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노동당을 지지해왔던 진취적인 25-34세의 젊은 세대에서 2005년 총선에서 노동당은 18% 앞섰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5% 뒤졌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Joe Coward, "Labour Has Lost the Battle - But It could still Win the War," *Labourlist*(2010. 6. 20).

11) Patrick Diamond and Giles Radice(2010), pp. 17-24.

12) Calum Benson, "Cameron Reclaims His Title as 'Heir to Blair'," *Total Politics*(2011. 1. 17).

이다. 보수주의자는 국민을 신뢰하고 국민에게 더 많은 권력과 책임을 주고 따라서 더 강력한 사회를 믿기 때문이다.” 이제 보수당은 사회와 같은 것은 없다던 신자유주의적 수사를 버리고 ‘큰 사회’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진보적 비전’을 운운한다. “국가 축소는 가난한 사람과 취약자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해 국가는 분명한 역할이 있다.”고 선언한다. 보수당은 동성애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빈곤퇴치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녹색경제를 지지하고, 노동당정부에서 도입된 대부분의 노동시장개혁을 계속 이행할 것임을 약속했다.

카메론은 보수당을 “공정사회를 중시하고 리버럴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중도의 유권자(middle-ground voters)에 어필할 수 있는” 현대화된 보수당으로 변화시켰다. “나는 보수당을 더 온정적인 보수당으로 만들 것이다. 보수당을 영국정치의 주류로 만들고 광범하게 어필할 수 있는 당으로 만들고 전에 말하지 않았던 주제에 대해 말하고 당의 면모를 변화시킬 것이다. 이는 보수당을 여성과 흑인을 비롯한 인종적 소수자를 대변하는 도시의 정당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리더십의 큰 테마이다.”<sup>13)</sup> 카메론의 ‘온정적 보수주의’는 경제적 자유주의와 사회적 자유주의의 새로운 연합을 구축해 영국정치의 중도를 장악하려는 기획이다. 보수당은 카메론의 ‘현대화’를 통해 수도권 중산층의 신뢰를 어느 정도 회복하는데 성공했던 것이다.

이는 노동당과 보수당이 어떤 사회집단과 친화적인지에 대한 조사에서 분명해 진다.

13) Andrew Rawnsley, "The David Cameron Interview - I'm not a Deeply Ideological Person. I'm a Practical One," *The Observer*(2005. 12. 18); David Cameron, "The Big Society" (2009. 11. 10). [http://www.conservatives.com/News/Speeches/2009/11/David\\_Cameron\\_The\\_Big\\_Society.aspx](http://www.conservatives.com/News/Speeches/2009/11/David_Cameron_The_Big_Society.aspx)

[표 2] 사회집단의 노동당·보수당 친화도

	노동당	보수당
복지수급자	66%	12%
노조	69%	9%
이민자	59%	20%
주택소유자	31%	57%
중산층	35%	68%
수도권	32%	72%

\* 사회집단의 정당 친화도를 100점 척도로 측정한 것임

수도권 유권자들은 노동당을 복지수급자(66%), 노조(69%), 이민자(59%)와 친화적이고 주택소유자(31%), 중산층(35%), 수도권(32%)과 소원하다고 생각했다. 반대로 카메론의 보수당은 수도권(72%), 중산층(68%), 주택소유자(57%)의 정당이었다. 수도권 유권자들은 현재 경제운영에 대해서 보수당을 신뢰하고 노동당이 경제를 망치고 세금을 올리고 재정을 방탕하게 사용할 것으로 생각했다. 일반적으로 노동당은 보통의 열심히 일하는 가족에게 줄 것이 거의 없는 정당으로 보였다.

보수당은 모든 주요 능력이슈에서 신뢰를 받고 있었다. 경제운영에 대해 44% 대 16%로, 재정적자 축소에 대해 51% 대 12%로, 납세자를 위해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31% 대 12%로 보수당이 더 신뢰를 받고 있다. 심지어 노동당이 강세를 보여야 하는 이슈에 대해서도 보수당이 노동당보다 더 신뢰를 받고 있다. 어느 당도 다수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지만 보수당은 공정한 지출삭감에 대해 27% 대 16%로, 평등과 사회이동의 달성에 대해 22% 대 16%로 노동당을 앞서고 있었다.

교육과 의료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는 노동당이 강한 이슈였지만 카메론의 보수당 현대화는 이를 무력화시켰다. 수도권 유권자의 거의 반(47%)이 노동당 정부가 공공지출을 낭비했고 서비스를 향상시키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들은 교육에 대한 노동당 정부의 투자에 대해서도 무려 70%가 낭비되었다고 생각했다. “교육과 의료에 이용하는 사람들은 노동당 집권전인 13년 전과 동일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이들은 노동당 집권 이전이 어떠한지를 몰랐다.” 수도권 유권자들은 교육과 의료에서 노동당 정부의 성과를 당연시했고 더욱 많은 것을 요구했던 것이다.

더욱이 수도권 유권자들은 노동당이 진정으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해 알지 못했다. 수도권 유권자의 32%만이 요즘 노동당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러나 60%는 그렇지 못했다. 반대로 60% 이상이 카메론의 현대화 이후 보수당이 무엇을 대변하는지 이해하고 있었다. 보수당은 국민과 더 많이 공감하고 더 정직하고 정치활동방식에서 덜 네거티브한 정당으로 인식되고 있었다.<sup>14)</sup>

결국 노동당은 중산층의 신뢰를 잃어 수도권에서 참패, 선거에 패배했던 것이다. 반면, 카메론의 보수당은 현대화를 통해 중도를 장악, 수도권 중산층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2005년 총선에서 노동당을 지지했지만 이번 총선에서 지지를 철회한 유권자에 대한 조사는 중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노동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유권자가 노동당에 투표한 지지자보다 정치적 주류에 더 가깝다는 것이다. 이번 총선의 패배원인은 분명하다. “노동당은 정치적 중도를 상실했다. 정치적 위치설정의 변화 없이 다

14) Patrick Diamond and Giles Radice(2010), pp. 25-29. Patrick Diamond and Giles Radice, "From Aspiration to Insecurity: The New Story of the South," *The Fabian Review*(2010 Autumn).

음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sup>15)</sup> 영국정치의 주류, 중도 부동층 집단(centrist swing voters)인 수도권 중산층의 신뢰회복 없이 노동당의 재 집권은 불가능하다.

### III 에드 밀리반드의 ‘중산층 정치’

수도권 중산층에 대한 경멸과 적대감은 노동당 구좌파의 본능이었다. 구좌파는 수도권이 노동당에 내재적으로 적대적인 지역이라고 생각했다. 수도권은 이기주의를 상징하기 때문에 노동당이 영혼을 팔아야만 승리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것이다. 수도권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돈이면 된다는 소비자 만능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너무 번영하고 너무 안락하고 너무 이기적인 중산층 지역으로 간주된다. 중산층 이기주의에 대한 영합이 제3의 길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이런 구좌파의 중산층 혐오 심리의 근거에는 비주류임을 자랑스러워하는 ‘영광스런 패배의 신화(the myth of glorious defeat)’가 있었다.<sup>16)</sup>

이에 대항해 노동당 현대화론자는 표를 얻고자 빈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갖고 수도권 중산층에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도권 중산층을 더 잘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수도권 중산층의 불만이 정당하다는 것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했을 때,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다.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줄뿐만이 아니라 가장 노력할 준비가 되어있는 사람에게도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노동당의 핵심적 가치는

15) Richard Darlington(ed), *Open Verdict Why Voters Left Labour*(London: Demos, 2010).

16) John Denham, "Southern Discomfort Revisited" (Fabian Society, 2007. 5. 23).

수도권 중산층의 가치와 조용하다는 것이다. 또한 수도권 중산층은 다른 지역 유권자처럼 공공정책의 결과에 관심을 갖고 있다. 수도권의 핵심 이슈는 보건 서비스, 범죄, 주택, 이민, 교육, 환경 등으로 전국적으로 공유되는 이슈이다. 따라서 수도권에서 신뢰를 다시 얻는 것이 노동당 재집권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수도권에서 승리할 수 있다면 전국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당이 중산층 영국(Middle Britain)을 포기한다는 것은 더 이상 집권에 관심 없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수도권에서 지지를 다시 얻는 것은 선거승리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동당의 정치적 원칙에 입각해 있다.”

‘노동당의 재현대화’는 단순히 1990년대의 ‘제3의 길’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다. 금융위기 이후 ‘고통 받는 중산층’의 열망과 불안을 대변하는 신뢰할 수 있는 메시지와 어젠더가 필요하다. 「남부의 불만의 재출현 Southern Discomfort Again」은 다음과 같은 현대화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sup>17)</sup>

첫째, 노동당은 19세기 노동계층의 ‘항의의 정당’에 그 기원을 두고 있지만 ‘권력의 정당(a party of power)’이 되어야 한다. 국민을 돕고 정의를 바로 세우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동당은 집권해야 한다. 명백한 듯이 보이지만 비주류의식에 찌든 당내 구좌파는 참패를 원칙의 고수로 자위하면서 중산층의 이기심 탓을 했다. 1980년대의 노동당의 연이은 참패는 이런 원리주의적 사고에 기인했다. 노동당은 확신을 갖고 영국정치의 주류, 중도, 중산층을 대변하는 영국의 ‘자연스런 집권당(the natural party of government)’이 되는 것을 열망해야 한다.

둘째, 노동당은 ‘국민정당으로서 광범한 선거연합(a broad electoral alli-

17) Patrick Diamond and Giles Radice(2010), pp. 29-31.

ance as a national party)’을 구축해야 한다. 이는 ‘중산층의 꿈’을 중심으로 중산층과 서민이 연합하는 것이다. ‘중산층의 꿈’은 중산층이 되기를 열망하는 ‘서민의 꿈’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노동당이 다수가 되기 위해서는 중산층, 즉 숙련노동계층, 화이트칼라, 전문가집단에서 더 많은 지지를 얻어야 한다. 또한 지역적으로는 노동당의 전통적인 지지기반인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부 잉글랜드의 핵심 지지기반과 함께 수도권에서 더 많은 의석을 얻어야 한다.

셋째, 노동당은 경제이슈에서 유능하다는 신뢰를 다시 얻어야만 승리할 수 있다. 경제와 같은 ‘능력 이슈(competence issues)’에서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국가운영능력을 의심받기 때문에 노동당의 전통적인 강점인 복지와 같은 ‘온정 이슈’에서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이는 중산층을 보호하는 조세·지출정책만이 아니라 재정적자를 줄이고 공공재정을 지속가능한 토대 위에 놓는 신뢰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개발할 것을 요구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당이 영국경제의 매력적인 성장모델을 제안하는 것이다. 증세를 통한 복지가 아니라 성장을 통한 복지는 여전히 노동당의 핵심 정책기조가 되어야 한다.

넷째, 노동당은 ‘사회정의의 정당임과 동시에 개인의 열망의 정당(the party of social justice and individual aspiration)’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노동당은 빈곤퇴치에 실질적인 성과를 보임으로써 취약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중산층의 열망을 대변하는 ‘사회이동의 정당(the party of social mobility)’이 되어야 한다. 노동당의 임무는 엘리트와 기득권자들이 만든 장벽을 해체하고 기성제도에 도전하여 모든 개인이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생애첫주택구입자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부동산정책이 중요하다.

다섯째, 노동당은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논쟁적 이슈에 대해 정면으로 대응해 공개적으로 논쟁해야 한다. 여기에는 노동당이 전통적으로 불편해했던 이슈인 이민, 복지개혁,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역할이 포함된다. 특히, 현재의 재정긴축 상황에서 공공서비스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노동당이 말하지 못했던 이슈에 대해 노동당의 전통적 가치에 근거해 시대상황에 적응하는 창의적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여섯째, 노동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를 향상하고 집권의 발판으로써 지방정부에서 당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 중앙집권이 아니라 지방분권이 노동당의 노선이 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웨일즈와 스코틀랜드처럼 잉글랜드에서도 지역의회를 신설해야 한다. 수도권, 즉 남부 잉글랜드에서 노동당이 취약한 것은 노동당이 잉글랜드의 정체성을 대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곱째, 노동당은 수도권에서 당을 재활성화하고 현대화해야 한다. 특히, 노동당이 지속적으로 취약했던 수도권에서 새로운 후보를 발굴할 수 있도록 중앙당의 조직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여덟째, 노동당은 자신만의 새로운 정치에 대한 아이디어를 개발해야 한다. 정치를 다르게 하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 격돌정치 속에서 국민은 국익을 위해 함께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정치인을 높이 평가한다. 이는 이전에 노동당을 지지했지만 이번 총선에서 보수당에 투표한 유권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데 필수적이다. 또한 노동당은 보수당과의 연정 때문에 실망하게 될 자유민주당 지지자를 따뜻하게 환영해야 한다. 중산층이 지지기반인 자유민주당과의 연합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하여 자유민주당의 핵심 요구사항인 선호투표제에 대한 국민투표를 노동당은 완전히 지지해야 한다.

에드 밀리반드 신임 노동당 대표 하에서 ‘정책 재검토(Policy Review)’를 이

끌고 있는 번(Liam Byrne)은 “노동당의 새로운 대표가 해야 할 첫 번째 과업은 열망을 가진 ‘중산층 영국’이 앞으로 10년동안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노동당을 열망의 정당(the party of aspiration)으로 혁신하는 계획이 없이 다시 다수당이 될 수는 없다.” 이는 “다시 한 번 열망의 정치(the politics of aspiration)를 실현하는 것이다. 열망과 기회는 언제나 우리의 연합을 단결시켰던 연대의 이념이기 때문이다.<sup>18)</sup> 그리고 교육은 언제나 열망과 기회의 상징이었다.” 이번 총선에서 노동당은 열망을 가진 가족을 대변하는 아이디어가 없었기 때문에 재집권을 위해 광범한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번에 의하면 노동당의 재집권을 위해서는 미국 민주당의 현대화를 벤치마킹해야 한다. 진보정당은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우파의 메시지로 착각하는 그러나 보통의 근로대중의 희망과 열망에 깊이 뿌리내린 가치를 다시 주장할 수 있는 현대화된 정당을 통해서만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미국 민주당의 현대화는 기회, 포부, 책임의 중산층의 자연스런 가치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 ‘중산층 프로젝트(the middle-class project)’였다. 중산층 프로젝트는 구좌파가 흔히 비난하듯이 서민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서민도 중산층

18) 계층상승, 사회이동의 열망은 신노동당 비전의 핵심이었다. “노동당은 영국정치에서 자연스런 중도정당(the natural party of the centre)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진보적 중도(Progressive Centre)로부터 노동당은 분명한 가치에 근거한 정치(the value-based politics)를 공약해야 한다. 노동당 비전의 핵심에 사회이동(social mobility), 기회균등(equality of opportunity), 시민자활(citizen empowerment)의 공약이 있다. ...개인의 자활, 생활기회의 향상, 궁극적으로 사회이동의 향상에 대한 분명한 공약은 우리의 모든 개혁을 관통하는 핵심이다.” Jim Murphy(ed), *Social Mobility and Public Service Reform, Policy Network*(2006). 이와 관련하여 미국 민주당은 ‘국가의 공동비전’으로 아메리칸 드림에 근거한 ‘기회의 사회(The Opportunity Society)’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모두를 위한 상향이동전략(the upward mobility strategy for all)’을 기안했다. “가장 강할 때, 민주당은 중산층과 중산층이 되기를 열망하는 국민의 정당이었다. 기회는 다른 무엇보다 민주당을 단결시켰던 가치이다. 우리는 기회의 정당(the party of opportunity)이다. ...우리가 국민의 성공을 돕는 담대하고 분명한 경제성장의 비전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우리가 기회의 정당이라는 것을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Al From and Bruce Reed, “What We Stand For,” *Blueprint*(2005. 3. 16).

처럼 더 나은 삶을 희망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원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언제나 원하는 것은 탐욕 없이 자신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오바마정부의 중산층태스크포스(Middle-Class taskforce)를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 중산층태스크포스의 임무는 “중산층을 성장과 다시 연결시키는 데 필요한 정책적 접착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것이다.” 노동당의 ‘재현대화’는 중산층 프로젝트, 중산층 정치의 복원이라는 것이다.

새로운 대표의 두 번째 과업은 조직의 현대화이다. 이는 선거승리를 위한 당의 조직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 노동당을 책임과 공동체의 정당(the party of responsibility and community)으로 혁신하는 것이다. 언론플레이만이 아니라 현장의 지역사회에서 노동당 정치인이 주도하는 캠페인 정치가 중시되는 공동체 정치(community politics)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현장에서 노동당의 가치를 공유하는 시민활동가, 사회적 기업가 등과 연대하여 지역의 변화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신뢰를 얻고 뿌리내리는 정당이 되는 것이다.<sup>19)</sup>

에드 밀리반드 노동당 대표는 대체로 이 제안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 당대표경선동안 보수언론에 의해 ‘빨갱이 에드(Red Ed)’로 비판받았지만 적어도 당대표가 된 후 메시지 차원에서는 분명한 ‘중산층 정치’를 실천하고 있다. 에드 밀리반드가 ‘정책 재검토’의 책임자로 현대화론자인 번을 임명한 것도 우연이 아닐 것이다. 에드 밀리반드에 비판적인 블레어는 “보수당을 물리칠 기회를 가지려면 정치의 중도를 고수해야 한다”고 하면서 “밀리반드가 대표 취임연설에서 말했듯이 중도에 있기를 희망한다. 정말로 그렇게 하기를

19) Liam Byrne, *Why did Labour Lose and How do We Win Again?*(London: Progress, 2010), pp. 17-29.

희망한다”고 말하고 있다.<sup>20)</sup>

에드 밀리반드는 “신노동당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진보할 때마다 우리는 고정관념에 도전함으로써 진보했다”는 것으로 규정한다. “블레어와 브라운은 고정관념과 기성제도에 도전하는 용기를 가졌고 영국을 변화시켰다. 이는 노동당을 성공적인 정치세력으로 만들었던 용기였다.” 지난 총선에서 노동당이 패배한 근본 원인은 “적응과 변화 능력에 근거한 정치적 힘인 신노동당이 이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낡은 고정관념에 안주했고 점차 더욱더 새로운 기성세력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구좌파의 낡은 고정관념을 청산하고 새로운 해법을 창안하려는 제3의 길이 타성에 빠졌다는 것이다.

1969년생인 에드 밀리반드는 ‘새로운 세대’를 자임하면서 “노동당의 새로운 세대는 다르다. 다른 태도, 다른 아이디어, 다른 정치활동방식”을 추구한다고 말한다. 노동당이 다시 변화의 세력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변화는 주류의 다수를 대변하는 중도를 위해 싸우는 것이다. 새로운 세대는

20) Kevin Schofield, "Blair Warns Ed: Don't Be so Red," *The Sun*(2010. 10. 5). 에드 밀리반드 노동당 대표의 취임 연설에 대해 국내언론은 가디언을 인용, “제3의 길은 끝났다”(중앙일보 2010. 9. 29). “신노동당 시대는 끝났다”(국민일보 2010. 9.29)고 보도했다. 물론 에드 밀리반드가 영국 보수언론에 의해 ‘빨갱이 에드’로 불릴 정도로 좌경화된 것으로 간주된 것은 사실이다. 실제로 작년 9월 당대표 경선에서 당내 좌파와 노동조합의 지지로 4차까지 가는 투표 끝에 1.3%차로 역전 예상을 깨고 당대표가 되었다. 블레어와 만델슨(Peter Mandelson)의 지지를 받은 형 데이비드(David Miliband)는 중도적인 블레어 계열로, 에드는 좀 더 좌경화된 브라운 계열로 알려졌다. 그러나 에드 밀리반드의 대표취임연설은 중도적인 중산층 정치를 강조하고 있고 현재까지 이 기초를 유지하고 있다. 에드 밀리반드는 이라크전, 적합한 은행규제제도의 부재, 경제적 안전에 대한 망각, 새로운 정치의 실행 부족 같은 신노동당정부의 ‘심각한 실수’를 인정했다. 그러나 ‘제3의 길’의 기본노선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나는 우리가 신노동당을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왜 내가 신노동당을 넘어야 한다고 말할까? 신노동당의 접근방식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다. 많은 방식에서 옳았다. 사회정의와 경제적 효율성이 함께 가야하고 부의 분배와 부의 창출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 모든 사회 부문에 어필해야 한다는 것.” Ed Miliband, “Ed Miliband Claims Notion of the ‘Big Society’ for Labour” *The Guardian*(2011. 1. 15). 에드 밀리반드에 비판적인 만델슨은 그의 정치적 노선을 토니 블레어와 다르지만 구좌파로의 후퇴도 아닌 평등주의적 사회자유주의자(egalitarian social liberal)로 규정하고 있다. Peter Mandelson, *The Third Man*(London: HarperCollins, 2010).

‘중도를 위해 싸우는 세대’이기 때문이다. “노동당을 지도할 새로운 세대는 우리의 과거에 겸손하고 미래에 이상적이다. 이 세대는 언제나 주류의 다수(the mainstream majority)를 대변하는 세대이다. 이 세대는 중도가 반대파에 의해 지배되고 규정되는 것을 용인하지 않으며 중도를 위해 싸우는 세대이다. 그리고 이 세대는 변화를 갈망하는 세대이다.” 따라서 해법은 다시 한 번 노동당을 중도화하는 ‘재현대화’이다.

나의 임무는 분명하다. 다시 한 번 노동당을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세력으로 만들 것이다. 고정관념에 굴복하지 않고 다수를 대변하면서 정치의 중도(the centre ground of politics)를 형성하는 정당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분명히 말하겠다. 이는 노동당이 아니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다.<sup>21)</sup>

이는 지난 총선에서 카메론이 ‘온정적 보수주의’로 보수당을 현대화하여 중도를 빼앗음으로써 노동당이 패배했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카메론의 보수당 현대화, 즉 중도화에 대해 노동당을 좌경화하는 것은 과거 구좌파의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다. 또한 보수당정부가 본색을 드러내거나 실수하기를 바라는, 기다리는 정치는 무책임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영국 정치의 중도가 진정으로 어디에 있는지를 이해함으로써 노동당을 광범한 운동으로 재건해

21) Ed Miliband, “The New Generation: Ed Miliband’s Leadership Speech,” *Labourlist*(2010. 10. 28). 에드 밀리반드는 노동당 대표가 된 후 ‘중도’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나의 리더십은 어떤 좌경화도 아니다. 나는 정치의 중도를 대변한다. 그러나 이는 중도가 어디 있는지 규정하는 것이다. 신노동당은 처음에 근본적이고 개혁적인 정부였다. 우리는 영국에서 변화를 갈망하는 사람들이었다. ...우리가 기성세력이 된 것을 우려한다. 기성세력이 되었을 때 권력을 상실한다.” Ed Miliband, “Miliband: ‘I’m My Own Man,’” BBC(2010. 9. 26).



야 한다.”<sup>22)</sup>

정치의 중도는 중산층을 대변하는 것이다. 노동당이 다시 중도를 장악, 재집권하기 위해서는 중산층과 공감하는 능동적인 중산층 정치가 필요하다. “나의 목표는 노동당이 우리나라의 고통 받는 중산층(the squeezed middle)과 열심히 일해 성공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나의 목표는 재집권하는 것이다.”<sup>23)</sup> 중산층 영국의 주류 유권자에게 어필함으로써 중도로 복귀해 재집권하겠다는 것이다. ‘고통 받는 중산층’은 에드 밀리반드의 중산층 정치의 상징어이다. 에드 밀리반드에게 ‘고통 받는 중산층’은 “열심히 오랜 시간 일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가족들과 함께 할 충분한 시간이 없다. 이들은 자녀들이 빚더미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한다. 이들은 주택에 대해 걱정한다. 이들은 내가 이 나라에서 대변하기 원하는 사람들이다.” 고통 받는 중산층은 선거승패를 결정하는 “다음 몇 년간 정치적인 핵심 격전장”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어떤 사람은 내가 결코 다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고통 받는 중산층’은 마케팅 단어가 아니라 현재의 경제적 결과로 고통 받는 수백만 명의 삶의 현실을 표현하고 있다.”고 말한다. ‘고통 받는 중산층’은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는 현실을 말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희망과 열망을 대변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임무가 되어야 한다.”

‘고통 받는 중산층’이라는 메시지는 몇 가지 임무를 제기한다. 첫째, “우리는 매우 부유한 소수만이 열망을 갖고 있다는 생각에 도전해야 한다. 우리 모

22) Ed Miliband, "Becoming the Standard-bear of Britain's Progressive Majority," *Labourlist*(2011. 1. 15). Allegra Stratton, "Ed Miliband Leadership: 'Red Ed' Yearns to Put forward his Centrist Vision," *The Guardian*(2010. 9. 26). Helene Mulholland, "No Lurch to Left, Vows New Labour Leader Ed Miliband," *The Guardian*(2010. 9. 26).

23) Ed Miliband, "My Vision to Rebuild Trust," *The Telegraph*(2010. 9. 25). Helene Mulholland, "Ed Miliband Pledges to Stand up for Britain's 'Squeezed Middle'," *The Guardian*(2010. 11. 26).

두는 삶의 꿈을 갖고 있고, 공정한 영국은 배경, 부, 연줄과 상관없이 성공할 수 있는 영국이 되어야 한다.” 둘째, “우리 경제가 다수를 위해 작동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지난 10년간은 유례없는 성장과 번영의 시기였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전에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생활수준은 고통 받고 있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창출한 일자리의 질에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셋째, “현재 고통 받는 가족이 갖고 있는 자녀의 미래에 대한 깊은 불안을 이해해야 한다. 지난 10년간 수백만 명의 청년들이 많은 기회를 가졌다. 그러나 지금은 처음으로 자녀의 삶이 자신보다 더 어려워질 것을 불안해하는 시대이다. 이 포부의 고통은 생활수준의 고통만큼 심각한 것이다.” 넷째, “우리는 열망이 단순히 소득에 대한 것이라는 고정관념에 도전해야 한다. 가족 생활의 고통은 단순히 금전적인 것만이 아니다. 우리의 시간, 관계, 공동체의 고통이다. 오늘날 우리는 국민의 진정한 희망에 대해 너무 협소하게 생각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에 대해 말하지 못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 따라서 “고통 받는 중산층의 열망과 불안은 우리의 정책재검토와 영국을 변화시키는 계획의 핵심이 될 것이다.”<sup>24)</sup>

에드 밀리반드의 ‘고통 받는 중산층’ 메시지는 ‘영국의 약속(the British Promise)’과 ‘공동체(Community)’를 핵심테마로 하고 있다.<sup>25)</sup> ‘영국의 약속’은 “다음 세대가 지난 세대보다 더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는 우리 모두가 자신의 자녀를 위해 원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위해 원하는 것이다.” 이는 “각 세대가 다음 세대에 더 큰 기회, 번영, 행복한 삶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카메론 보수당정부의 무모한 재정긴축정책으로 가령, 교육수당이 폐지되어 대학교 학비가 3배로 폭등했고 청년 실업자에 대한 지원

24) Ed Miliband, "Labour must Be a Force for Optimism," *The Telegraph*(2010. 11. 26).

25) Ed Miliband, "Ed Miliband's Speech to the People's Policy Forum," *Labourlist*(2011. 3. 25).

이 중단되었다. 따라서 “삶과 꿈 사이의 간격이 점차 더 넓어지고 있다.” 이는 “영국의 약속의 이념에 대한 배신이다.” 따라서 “나의 출발점은 하나의 당으로서 우리는 영국의 약속을 우리가 하는 일의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sup>26)</sup> 이는 노동당을 낙관주의와 미래세대의 성공에 초점을 맞추는 ‘미래세력’으로 일신해 중산층의 신뢰를 다시 얻으려는 메시지이다.

‘공동체’는 중산층 정치의 또 다른 중요한 테마이다. “우리는 가족과 친구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해 걱정한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우리의 자녀가 성장하는 공동체에 대해 걱정한다. 그리고 우리는 공동체의 성격을 규정하는 진짜 중요한 지방의 기관에 대해 걱정한다.” 가령, 지방의 우체국, 아동센터, 도서관, 국가보건서비스 등과 같은 기관이 카메론 보수당정부의 긴축정책으로 위협받고 있다. 우리는 “공동체를 지원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 또한 카메론 보수당정부는 “우리나라를 다시 분열시킴으로써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 카메론은 “분열의 정치”를 하고 있다. “금융위기에 책임이 없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반면, 금융위기를 야기한 은행가는 감세혜택을 받고 더 많은 보너스를 받고 있다.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은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 분노한다고 한다. 민간부문 노동자는 공공부문 노동자에 대해 분노한다고 한다. 청년은 부모와 같은 동일한 생활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는 영국을 재건하고 통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노동당의 임무는 국가를 통합하는 것이다.” 이는 카메론의 보수당을 공동체를 파괴하는 ‘국민분열세력’으로 낙인찍고 노동당을 ‘좋은 사회’를 만드는 ‘국민통합세력’으로 일신해 중산층의 신뢰를 다시 얻으려는 메시지이다.

이는 또한 보수당-자유민주당 연립정부에 실망한 중산층 자유민주당 지지

26) Ed Miliband, "The British Promise"(2011. 4. 2). <http://edmiliband.org/speeches/british-promise-social-mobility/>

자들의 지지를 다시 얻으려는 것이다. “자유민주당 대표는 보수당과 함께 함으로써 비극적인 실수를 했지만 정부의 잘못된 방향에 반대하기 위해 의회 안과 밖에서 자유민주당과 함께할 준비가 되어있다.” 노동당은 ‘중산층의 꿈’을 공유하는 모든 세력과 대연합을 해야만 재집권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27)</sup>

함께 더 잘 사는 중산층의 꿈, ‘영국의 약속’과 ‘공동체’를 대변하는 노동당, 이것이 에드 밀리반드의 중산층 정치의 메시지이다. “다시 한 번 국민의 정당(the people’s party), 국민의 희망과 열망의 정당(the party of people’s hopes and aspirations)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28)</sup> 중산층의 계층상승 열망인 ‘영국의 약속’과 국민통합의 희망인 ‘공동체’는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노동당의 새로운 세대는 번영과 분배가 동시에 가능하다는 신노동당의 근본적인 교훈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1990년대의 신노동당의 통찰은 부의 분배와 함께 부의 창출을 이해하고 사회정의와 함께 경제적 번영이 필요하고 우리 사회의 문제는 정부와 기업 간의 파트너십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이다.<sup>29)</sup>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신노동당의 통찰을 전진시켜야 한다.” 그 핵심은 “기업과 일자리 창출이 좋은 경제와 좋은 사회의 토대”라는

27) Ed Miliband, "The Labour Party Still Has to Change." *The Guardian*(2011. 1. 14) 에드 밀리반드는 이번 총선에서 과거 노동당을 지지했던 중산층이 자유민주당을 지지했다고 진단하고 노동당을 “자유민주당 투표자의 집”으로 만들 것임을 공언했다. 나아가 대표취임연설에서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으로 자유주의자들을 열거하고 있다. “지혜는 어느 한 정당의 전유물이 아니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은 케인즈(John Maynard Keynes), 로이드 조지(David Lloyd George), 베버리지(William Henry Beveridge)이다. 이들은 노동당원이 아니었다.” 이들은 자유주의자였다. Ed Miliband, "The New Generation: Ed Miliband's Leadership Speech." *Labourlist*(2010. 10. 28).

28) Ed Miliband, "Ed Miliband's Speech to Labour's NPF." *Labourlist*(2010. 11. 27).

29) 1997년 토니 블레어의 신노동당 매니페스토는 정의 공약(commitment to justice)과 기업 공약(commitment to enterprise)을 병행추진하기 위해 중산층의 ‘열망’을 ‘욕망’으로 경멸하는 “질투의 정치(the politics of envy)”를 폐기했다. “우리는 더 적은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성공한 기업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생활기회는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신노동당은 “아망과 온정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동반하는 사회를 원한다”고 선언했다. 영국 노동당(1997), “신노동당, 영국은 더 좋아질 수 있기에 영국은 신노동당과 함께 더 좋아질 것이다.” 『중도개혁주의, 제2회(서울: 국가전략연구소, 2007), pp. 139-140.』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핵심을 이해하는 정당을 이끌고 있다.”<sup>30)</sup> 에드 밀리반드는 제3의 길의 현대화 프로젝트를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에드 밀리반드는 ‘책임 있는 야당지도자’로서 중산층 정치를 뒷받침하는 ‘책임 있는 계획’을 강조한다. 이는 유권자들이 언론플레이 정치를 혐오하는 상황에서 유권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과도하게 약속만 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약속은 적지만 실천은 확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사회가 직면한 큰 문제에 대해 말해야 한다. 그러나 쉬운 해결책이 있거나 해법도 없으면서 있는 척 해서는 안 된다. 공약은 겸손하게 하지만 국가를 위해 우리가 하기 원하는 것에는 야심적이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표어이다.” 또한 금융위기 이후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긴축정책이 요구되고, 이는 전통적으로 노동당이 불편해 했던 이슈이다. 더욱이 경제 이슈에서 노동당에 대한 유권자의 불신이 큰 상황에서 ‘책임 있는 계획’은 더욱 필요하다. “책임 있는 계획의 출발점은 다음 4년간 재정적자를 반으로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성장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고 경기침체를 항상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경제성장 계획이 없다면 신뢰할 수 있는 재정적자 축소계획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번영과 성장의 미래 동력에 대한 초점이 우리의 정책재검토의 핵심이 될 것이다.”

또한 노동당의 ‘책임 있는 계획’은 ‘변화의 계획’이다. 노동당이 ‘성장의 정당(the party of growth)’이 되기 위해서는 “변화의 계획이 필요하다. 은행을 개혁하고, 미래 산업에 투자하고, 우리경제의 피가 될 수 있는 중소기업과 기업가를 지원하는 계획이다.” 에드 밀리반드는 “노동당을 기업의 정당(the party of enterprise) 그리고 중소기업의 정당(the party of small business)

30) Ed Miliband, "Ed Miliband's Speech to CBI Conference," *Labourlist*(2010. 10. 25).

으로 만들 것”이라고 선언한다.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보수당의 극단적인 긴축예산안에 맞서 ‘일자리와 성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예산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카메론의 보수당정부를 ‘무능한 정부’로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sup>31)</sup>

성장 없는 재정적자 축소는 불가능할 뿐 아니라 ‘성장의 정당’이 되지 않고서는 경제 이슈에서 신뢰를 얻을 수 없고, 경제 이슈에서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이는 복지 이슈에서도 신뢰를 의심받는 ‘무능한 정당’으로 낙인찍힌다. ‘무능한 정당’은 집권당의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제3의 길의 “현대화 프로젝트는 노동당을 영국의 모든 국민들의 일상적인 불안과 열망과 공명하는 방식으로 온정, 공정, 사회이동, 공유된 사회책임과 같은 우리의 가치를 적용하는 현대적이고 경제적으로 유능한 국민정당으로 확립하는 것이다.”<sup>32)</sup> 에드 밀리반드의 중산층 정치는 노동당을 다시 ‘따뜻하면서 동시에 유능한 정당’으로 현대화하는 것이다. 중산층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따라서 수도권에서 승리하는 ‘유능한 국민정당’으로 면모를 일신하는 것이다.

‘문제는 무능이야. 바보야(It's incompetence, stupid!)

31) Paul Richards, "It's Incompetence, Stupid," *Progress*(2011. 3. 11). Labour Party, "Ed Miliband and Ed Balls' Press Conference"(2011. 3. 14). <http://www.labour.org.uk/ed-miliband-and-ed-balls-press-conference.2011-03-14>

32) Peter Mandelson, *The Third Man*(London: HarperCollins, 2010).

## IV 나오며

2010년 영국 총선에서 노동당은 수도권에서 전멸에 가까운 궤멸적 타격을 받음으로써 선거에서 패배했다. 이는 지난 3번의 총선에서 노동당을 지지하여 유례없는 13년 노동당 집권을 가능케 했던 중도 부동층집단인 중산층이 노동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승패에 따라 전체 선거의 승패가 좌우되고, 수도권의 승패는 중산층의 지지에 달려 있다. 따라서 재집권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정당이 되어야 하고 중산층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에드 밀리반드 신임 노동당 대표는 노동당을 수도권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노동당의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중도를 위해 싸우는 새로운 세대'임을 자임하면서 '고통 받는 중산층'의 열망과 불안을 대변하는 '중산층 정치'를 역설하고 있다. 노동당이 다시 변화의 세력임을 증명하기 위해 주류의 다수를 대변하는 중도를 위해 싸워야 하고, 이는 '중산층의 꿈'을 대변하는 것이다. 에드 밀리반드의 '중산층 정치'는 중산층의 계층상승 열망인 '영국의 약속'과 국민통합의 희망인 '공동체'를 핵심 테마로 한다. '영국의 약속'은 노동당을 낙관주의와 미래세대의 성공을 강조하는 미래 세력으로, '공동체'는 노동당을 '좋은 사회'를 만드는 '국민통합세력'으로 일신해 중산층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메시지이다. 노동당은 함께 더 잘 사는 '중산층의 꿈'을 대변하는 '국민의 정당', '국민의 희망과 열망의 정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산층의 꿈'을 공유하는 모든 세력과 대연합을 함으로써 재집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당은 중산층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보수당정부를 '무능한 정부'로 공격하는 한편, '중산층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계획'을 강조한다. '책임 있는 계획'은 미래성장동력을 중시하는 '변화의 계획'이다. 노동당이 수도권에서 승리하는 '자연스런 집권당'이 되기 위해서는 '따뜻하지만 무능한 정당'이 아니라 '따뜻

하면서 동시에 유능한 정당'으로 면모를 일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국 노동당의 경험을 민주당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중요한 시사점은 줄 수 있을 것이다. 카메론이 중산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 보수당을 중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드 밀리반드는 노동당의 좌경화가 아니라 중도화로 맞서고 있다.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신뢰가 지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노동당은 아웃파이터가 아니라 인파이터가 되어 중도 싸움에서 승리, 중산층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전통적으로 노동당이 불편해했던 이슈이며 집권당의 자격요건인 능력이슈, 특히 경제이슈에서 신뢰를 얻는 것이다. 에드 밀리반드는 이런 맥락에서 '노동조합의 정당'인 노동당을 '기업의 정당' 그리고 '중소기업의 정당'으로 현대화할 것임을 선언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지난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참패함으로써 전체 선거에서 참패했다. 민주당이 다음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수도권에서 이겨야 한다. 수도권에서 승리하려면 '잃어버린 6백만표'의 신뢰를 다시 얻어야 한다. '잃어버린 6백만표' 특히, 잃어버린 수도권 유권자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했지만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한나라당에 투표했던 30,40대·중도·중산층 유권자들인데, 사회적으로는 개혁적인 태도를 취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실리추구적인 성향을 가진 집단이다. 이들은 무능한 이명박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지만 아직 민주당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고통 받는 중산층'이다.<sup>33)</sup> 이명박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고통 받는 중산층'의 신뢰를 되찾고 공고화하기 위해서 민주당은 빈 말이 아닌 확신을 갖고 '중산층의 꿈'을 대변하는

33) 이태희, "노무현은 이명박의 미래다," 『한겨레21』, 제725호(2008). 서울시장개발연구원이 발표한 지난해 10월 서울시민에 대한 조사에서 자신을 중하층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51.3%, 중상층은 23.2%였다. 서울시민의 중상과 중하를 합친 중간층 귀속의식은 74.5%이다. "서울시민 51% '나는 중하층,'" 『세계일보』, 2011년 5월 11일. 한겨레의 2011년 국민 이념성향 조사에 따르면 진보 30.7%, 중도 43.9%, 보수 25.3%이고, 일관된 진보 27%, 이념적 혼재 51.7%, 일관된 보수 21.3%로 중도와 이념적 혼재 유권자가 늘어났다. 『한겨레』, 2011년 5월 16일.

---

정당이 되어야 한다. '행복한 중산층이 많은 세상', '중산층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계획' 또는 '변화의 계획'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강할 때, 중산층은 민주당의 자연스런 지지자였기 때문이다. 함께 더 잘 사는 '중산층의 꿈'은 또한 중산층이 되기를 열망하는 '서민의 꿈'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민주당만이 오직 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 참고문헌

**영국 노동당(1997).** “신노동당, 영국은 더 좋아질 수 있기에: 영국은 신노동당과 함께 더 좋아질 것이다.” 『중도개혁주의』 제2호(서울: 국가전략연구소, 2007).

**이진복.** “뉴타운의 정치학: 미국 민주당과 영국 노동당의 사례를 중심으로.” 『중도개혁주의』 제4호(서울: 국가전략연구소, 2008).

**이태희.** “노무현은 이명박의 미래다?” 『한겨레21』 제725호(2008).

『세계일보』 2011년 5월 11일.

『한겨레』 2011년 5월 16일.

**Benson, Calum.** “Cameron Reclaims His Title as ‘Heir to Blair.’” *Total Politics* (2011.1.17).

**Butterworth, Myra.** “Most Britons Describe Themselves as ‘Middle Class.’” *The Telegraph*(2011.3.20).

**Byrne, Liam.** “Lost in the Middle.” *Progress*(2010.5.20).

**Byrne, Liam.** *Why did Labour Lose and How do We Win Again?*(London: Progress, 2010).

**Coward, Joe.** “Labour Has Lost the Battle-But It could still Win the War.” *Labourlist*(2010.6.20).

**Darlington, Richard(ed).** *Open Verdict Why Voters Left Labour*(London: Demos, 2010).

**Denham, John.** “How does Labour Speak to England?” *Fabian Society*(2010.6.8).

**Denham, John.** “Southern Discomfort Revisited.” *Fabian Society*(2007.5.23)

**Diamond, Patrick and Radice, Giles.** “Labour’s Fatal Southern Flaw?” *Poli-*

---

cy Network(2010.9.24).

**Diamond, Patrick and Radice, Giles.** "From Aspiration to Insecurity: The New Story of the South." *The Fabian Review*(2010 Autumn).

**Diamond, Patrick and Radice, Giles.** *Southern Discomfort Again* (London: Policy Network 2010).

**From, Al and Reed, Bruce.** "What We Stand For." *Blueprint*(2005.3.16).

**Gould, Philip.** *The Unfinished Revolution: How the Modernisers Saved the Labour Party*(Lond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98).

**Heath, Anthony F. et al.** *The Rise of New Labour: Party Policies and Voter Choices*(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Mandelson, Peter.** *The Third Man*(London: HarperCollins, 2010).

**Mattinson, Deborah.** "Southern Discomfort Twenty Years on." *Policy Network* (2010.11.9).

**Mattinson, Deborah.** "The Mind of Middle." *Progress*(2011.4.8).

**Miliband, Ed.** "Becoming the Standard-bear of Britain's Progressive Majority." *Labourlist*(2011.1.15).

**Miliband, Ed.** "Ed Miliband's Speech to CBI Conference." *Labourlist*(2010.10.25)

**Miliband, Ed.** "Ed Miliband's Speech to Labour's NPF" *Labourlist*(2010.11.27)

**Miliband, Ed.** "Ed Miliband's Speech to the People's Policy Forum" *Labourlist* (2011.3.25)

**Miliband, Ed.** "Ed Miliband Claims Notion of the 'Big Society' for Labour" *The Guardian*(2011.1.15).

**Miliband, Ed.** "Labour must Be a Force for Optimism" *The Telegraph*(2010.11.26)

**Miliband, Ed.** "Miliband: 'I'm My Own Man'." BBC(2010.9.26)

**Miliband, Ed.** "My Vision to Rebuild Trust" *The Telegraph*(2010.9.25).

**Miliband, Ed.** "The Labour Party Still Has to Change" *The Guardian*(2011.1.14)

---

**Miliband, Ed.** "The New Generation: Ed Miliband's Leadership Speech." *Labourlist* (2010.10.28).

**Mulholland, Helene.** "Ed Miliband Pledges to Stand up for Britain's 'Squeezed Middle'." *The Guardian*(2010.11.26).

**Mulholland, Helene.** "No Lurch to Left, Vows New Labour Leader Ed Miliband." *The Guardian*(2010.9.26)

**Murphy, Jim(ed).** *Social Mobility and Public Service Reform*, Policy Network(2006).

**Pollard, Stephen and Radice, Giles.** *More Southern Discomfort: a Year on - Taxing and Spending*, Fabian Pamphlet 560(London: Fabian Society, 1993).

**Radice, Giles.** *Southern Discomfort*, Fabian Pamphlet 555(London: Fabian Society, 1992).

**Rawnsley, Andrew.** "The David Cameron Interview - I'm not a Deeply Ideological Person, I'm a Practical One." *The Observer*(2005.12.18).

**Richards, Paul.** "It's Incompetence, Stupid." *Progress*(2011.3.11).

**Schofield, Kevin.** "Blair Warns Ed: Don't Be so Red." *The Sun*(2010.10.5).

**Stratton, Allegra.** "Ed Miliband Leadership: 'Red Ed' Yearns to Put forward his Centrist Vision." *The Guardian*(2010.9.26).

**Cameron, David.** "The Big Society"(2009.11.10). [http://www.conservatives.com/News/Speeches/2009/11/David\\_Cameron\\_The\\_Big\\_Society.aspx](http://www.conservatives.com/News/Speeches/2009/11/David_Cameron_The_Big_Society.aspx)

**Miliband, Ed.** "The British Promise"(2011.4.2). <http://edmiliband.org/speeches/british-promise-social-mobility/>

**"United Kingdom General Election, 2010."** [http://en.wikipedia.org/wiki/United\\_Kingdom\\_general\\_election,\\_2010](http://en.wikipedia.org/wiki/United_Kingdom_general_election,_2010)

**Labour Party.** "Ed Miliband and Ed Balls' Press Conference"(2011.3.14) <http://www.labour.org.uk/ed-miliband-and-ed-balls-press-conference,2011-03-14>

# 어떻게 ‘수도권정당’이 될 것인가?

- 2010년 영국 총선 평가와 노동당의 진로 -

---

**발행일** 2011년 5월 30일

**발행인** 박순성 (재) 민주정책연구원 원장

**홈페이지** 민주당 <http://www.minjoo.kr>

민주정책연구원 <http://www.idp.or.kr>

**전화** 02-2630-0114

**팩스** 02-2630-0194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6가 133번지 민주정책연구원

**디자인** 진애드 (02-2264-0608)

---